

광주 대형마트 23일 문 닫는다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오는 23일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의 휴일 영업제한이 다시 이뤄짐에 따라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광주시는 20일, 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을 담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 의결을 거쳐 23일부터 영업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업제한 재개 30곳 모두 휴업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최근 대형마트와 SSM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를 전달하는 등 영업제한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광주지역 대형마트 1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7곳이 오는 23일 의무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추석절 매출감소 우려 등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일부 업체들도 23일 의무휴업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고객안내 및 유통 물류 조정 등 휴업에 필요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형마트와 SSM 등을 상대로 '대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기여의 책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중소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의무휴업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했다.

/홍행기자 redplane@



광주시 남구는 '남구민 1만5000명 오카리나 대합주(다음달 6일)'를 앞두고 20일 오후 광주시 양림동 수피아여중에서 학생과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카리나 콘서트'를 개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남구 학생·주민 1천명 가을밤 오카리나 콘서트 장관

내달 6일 1만5천명 대합주 설린다

지난 4월 카리다드 리엘라 시슬(Caridad Rielra Sisor·여·39·광주시 남구 주월동)씨가 고향인 필리핀 루손(Luzon)섬을 방문했을 때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있었다. 15년 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녹음기를 틀자 잔잔한 오카리나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아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소양강 처녀' 등의 선율이 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형편상 함께 외가를 방문하지 못한 카리다드씨의 중학생 두 딸이 지난 2년간 배운 오카리나로 연주한 민요와 가요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선물로 준비해 놓은 것이다. 카리다드씨의

아버지(72)·어머니(69)는 그제야 먼 이국땅으로 보낸 딸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렸다. 카리다드씨는 최근 두 딸과 함께 오카리나 음색만름이나 아름다운 일을 준비중이다.

손바닥 만한 악기 하나로 남구 주민이 하나가 돼가고 있다. 광주시계 아리랑축전에 맞춰 다음달 6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남구민 1만5000명 오카리나 대합주'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오카리나 연주가 꼭 빠져져 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1만명 합주'를 목표로 시작한 당시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다. 기우였다. 두 달 만에 목표를 훌쩍 뛰어넘었다. 남구는 학생은 물론 주부,

노인, 회사원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몰려들자 목표를 1만5000명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1만5000명 오카리나 합주는 기네스 기록을 뛰어 넘은 것이다. 현재 오카리나 합주 기네스 기록은 중국이 보유한 8000명이다. 특히 한 자치구 주민들이 연주한 기록은 전무하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부분의 주민에게 오카리나라는 악기가 생소했기 때문이다. 남구는 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3억5000만원을 들여 지원자 개개인에게 악기를 보급했다. 음악강사 60명의 도움을 받아 경로당, 유치원, 학교, 교회에서 계이름, 악보 읽는 법, 운지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주민들의 열정이 전문가 못지 않은 탓에 가요 3~4곡은 자신있게 연주할 정도다. 오카리나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도 쉽게 익힐 수 있었던 덕분이다. 지난해 최영호 남구청장이 제안한 '1구민 1악기' 사업이 계기가 됐다.

1만5000명 대합주에 앞서 20일 오후에는 광주시 남구 양림동 수피아여중에서 '학생·주민 1000명 오카리나 콘서트'가 열렸다. 학생 700명과 양림·백운·봉선중 주민 300명이 참여했다.

학생과 주민들은 단 한 번도 연주를 맞춰보지 않았지만 금세 조화를 이뤘다. 아리랑이 연주되고, 뒤를 이어 '홀로 아리랑', '아름다운 것들', '임을 위한 행진곡', 'You are my sunshine'이 이어졌다. 그리고 1000여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독도는 우리땅'과 '아리랑' 플래시몹을 선보이며 대화합의 장관을 연출했다.

최 청장은 "이번 사전 콘서트를 통해 1만5000명 대합주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신성자동차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알림

두바퀴의 가을 스토리

10월 21일 'Green 자전거축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2012 Green 자전거축제'가 오는 10월 21일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자전거 인구 확대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친환경저탄소 녹색생활을 주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아름다운 남도의 햇살과 함께 하는 이번 은은 축제에 참여해 건강도 챙기고 무르익은 가을의 정취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12년 10월 21일(일) 오전8시30분 출발
- 코스 : 광주상무시민공원~동신대앞교차로~대산삼거리~서창교~광주상무시민공원
- 종목 : 로드레이싱 50km(경쟁/연령대 구분)
- 주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 주관 : 광주광역시사이클연맹,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자전거연합회
- 문의 : 062-220-0541
- 홈페이지 : http://bike.kjmedia.co.kr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사퇴

항소심 공판 앞두고... 12월 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중인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20일 구청장직을 사퇴했다.

유태명 청장은 항소심 선고를 1주 앞둔 이날 일신상의 이유로 전격 사퇴를 결정하고 동구의회 의장에 게 사퇴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들어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청장은 또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청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 모집을 하게 하는 등 박순진 의원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유 청장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

10만평의 자기농장과 60년의 제다
 100여종의 차 품종
 대한민국의 차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的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친환경 다원
 차
 고품질 녹차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03-4
 T.222-2902, 3973

감농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256-7007-8